

①. 서울시립대 / 서울대 사각지대. 모반  
 우리다. 단체 (공대학병합 / 동대학병합)  
 \* 학기때는 노서당 / 학생회관 / 등교  
 안정적임 공간마련

## 여휴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들 (2001.5)

다른 대학은 어떤가.

수신: 별 수 있는 집국들

발신: 일상정치국 예감

공과대.  
문과대.

→ 설문들은 돌린다. \*

### 1. 여휴를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작업

여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휴의 필요성을 다시 진진하게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여휴는 정말 필요한 공간인가, 이에 대한 많은 여학우들의 자지를 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휴를 개선하고 공간을 여학우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학우들이 여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여휴  
 라고 했을 때 학교측에 현실적인 대학내 여학우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복지시설이라는  
 측면으로 여휴의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여휴를 사용하고 있는 여학우들에게 어떤 이유로 그 공간을 사용  
 하고 있으며 반대로 여휴의 필요성을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학우들에게는 왜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들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학  
 우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여휴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학교측에도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딤돌 하나!

<대교대마다  
상황이 다르다>

모든 사람들의 설문 ① \*

[대교대마다 설문] - 스티커

나같은 경우 참여실이 주 생활공간이어서 별로 여휴를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여학우  
 들도 동아리나 과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여휴를 자주 다니거나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여휴를 개선한다고 하더  
 라도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시설의 상  
 황을 봤을 때, 개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요구해야겠지만 말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여휴에 대한 상에 대해 총여내부에서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탕수민

학우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고 그것이 일차적인 과정이지만 여휴의 시설개선이라는 문제를  
 차치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바꿔야 할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여휴라는 공  
 간이 휴게실이라는 의미만을 띄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휴게실의 기능도 제대로 하고 있  
 지 못한 상황이고 '여학우만을' 위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휴의 현실적 문제점들이라면 시설의 낙후, 접근의 용이성도 들 수 있겠지만, 고

립되어있고 그 공간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다와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여휴를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휴라는 공간은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딱히 누구를 위한 공간도 아니지만 모두를 위한 여학우들의 공간이라는 여휴의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 2. 여휴의 개선 방향

우선 우리가 학교측에 충여가 요구해나가야 하는 것들은 해나가야 할 것이다. 엄숙한 공문과 단호한 입장 견지. 여학생처나 학생처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로 요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상을 잡고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내 여성만의 공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3. 구체적인 기획과 프로그램들



여휴에 대한 상이 잡힌다면 여휴를 알려내고 여학우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학교측과 여학생처에 여휴의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단대 학생회와 연계하여 단대의 상황에 맞게 여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토록 적극 나선다. 이는 복지국장 회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내고 지지기반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여학우들에게 자신의 공간으로 여휴를 생각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 학우들을 모집하고 '여휴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꾸린다.

지원(누구의)을 받아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여휴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구와 시설들을 마련한다. 가능성을 타진해봐야겠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일정 \* 공간 제1면 여휴공 있는. 여휴.